

[제2018-29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b>사람이 있는 문화</b>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쪽(작품이미지 포함)
배포일시	2018. 5.2(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7141/exhibition@kccla.org	담당자	최희선 (323-936-3014)

**Reconstructing the Mindscape of a 17th-Century Korean Literati Garden**  
**세연정, 사색의 정원**

- ▶ 전 시 명 : 세연정, 사색의 정원 (**Reconstructing the Mindscape of a 17th- Century Korean Literati Garden**)
- ▶ 일 시 : 2018.5.8(화) 7:30pm
- ▶ 장 소 : Huntington Library, Art Collections, and Botanical Gardens  
(헌팅톤 라이브러리), Rothenberg Hall  
1151 Oxford Road, San Marino, CA 91108
- ▶ 주 최 : The Huntington / LA한국문화원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 ▶ 강 사 : 서이본 (Katharina I-Bon Suh) 예술사학자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이하 LA문화원)과 Huntington Library, Art Collections, and Botanical Garden(이하 헌팅톤 라이브러리)은 2018년 5월 8일(화) 7시 30분에 헌팅톤라이브러리 로텐버그홀에서 동북아시아 정원 강의시리즈 일환으로 기획된 <세연정, 사색의 정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에는 독일 프레이대

학 및 대학원에서 예술학을 전공한 서이본학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한국 정원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산 윤선도(1587-1671)의 마지막 거주지였던 전라남도 보길도에 소재하고 있는 윤선도 원림(園林)에 있는 세연정을 중심으로 한국 정원의 디자인 및 실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원과 17세기 한국 지식인들의 철학 및 문학과와의 연관성을 소개하여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사상을 짚어 볼 예정이다.



(보길도 세연정-자료출처 완도군청)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고산이 직접 조성한 조선시대 대표적 별서정원이다. 2008년도 명승 제34호로 지정되었으며 소쇄원, 서석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정원 중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윤선도는 가히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가로 불리우며 물의 흐름과 산세를 읽어가며 정원을 지었다. 이렇게

지은 정원에서 ‘어부사시사’ ‘산중신곡’ ‘오우가’ 등 우수한 작품들을 남겼다. 정원과 정자는 인간과 자연이 결합하여 빚어낸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 문화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한국의 정원문화는 2천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 박경자 / 전통경관보전연구원장 (자료출처 문화재청)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했던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예술적 감각으로 재현된 한국 전통 정원. 윤선도는 한국 정원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한국 최고의 정원가이다 - 이원호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자료출처-문화재청)

세연이란 ‘주변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하여 기분이 상쾌해 지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선도의 도학과 유학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낸 한국의 대표적 정원인 윤선도원림의 세연정을 중심으로 17세기 문인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그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정원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식물, 돌 등 정원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 윤선도의 사상, 풍수 및 개인적인 취향과 기술적인 특징을 보여주고자 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최희선/헌팅톤 라이브러리 626-405-3503 미셸 베일(Michelle Bailley) 에게 하면 된다.